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민 순¹ · 주리에² · 정현필³ · 정영주¹ · 김미란⁴ · 김윤경⁵

¹조선간호대학 교수, ²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박사수료, ³조선이공대학 교수, ⁴조선간호대학 외래교수, ⁵전남과학대학 외래교수

Effects of Job Participation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Min, Soon¹ · Ju, Ree Aie² · Jung, Hyon Pil³ · Jung, Young Ju¹ · Kim, Mi Ran⁴ · Kim, Yun Gyung⁵

¹Professor, 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 ²Doctoral Course, Graduate School of Gwangju University, Gwangju; ³Professor, Chosun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Gwangju; ⁴Part-time Lecturer, Chosun Nursing College, Gwangju; ⁵Part-time Lecturer, Chunnam Techno College, Gwangju, Korea

Purpose: The effects of job participation on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were investigated. **Methods:** Seventy residents of D welfare center located in G city who were >60 yr-of-age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he SERS research tool (Nugent and Thomas, 1993; modified by Koh, 2002) was used to assess self-esteem before and after a job participation program. The Cronbach's α value-based reliability of this tool was 0.923 and 0.920 before and after the job participation program, respectively. Cronbach's α value-based life satisfaction as measured according to Choi (1986) was 0.932 and 0.933 before and after the job participation program, respectively. **Results:** The hypothesis that job participation program increases self esteem was supported by the results. The mean self esteem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 job program, 3.31 and 3.48, respectively, represented a significant increase. The hypothesis that the job participation program increases life satisfaction was supported by the results. The mean life satisfaction index of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3.04 and 3.24, respectively, represents a significant increase. **Conclusions:** Increased job opportunities and income guarantee for adults, particularly the elderly, can increase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emotional stability.

Key Words: Job participation, Elderly, Self esteem, Life satisfac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에 들어와 우리는 고령화 사회로의 변모라는 하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Ahn, 2004). 한국 사회의 여러 부분들의 변화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부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노인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의학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통한 영양 및 건강관리의 개선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사망률이 저하되어 계속 일하고 싶

만 어쩔 수 없이 퇴직하여야만 하는 노인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Jung, 2007). 한국사회의 인구 고령화는 평균수명 연장 및 출생아 수 감소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Lee, 2007),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대비하여 온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비한 노령취업제도, 연금제도 등 노령계층을 위한 사회정책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Kim, 2004).

한국의 노인인구는 2005년 7.1%에서 2020년 14.6%, 2030년 20.6%를 예상하고 있고(Lee, 2007), 평균수명도 2003년에 77.5세(남자 73.9세, 여자 80.8세)에서 2005년 77.9세, 2020년 81.0세, 2030년 81.9세, 2050년 83.3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Jang,

주요어 : 일자리참여,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노인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Min, Soon**
Chosun Nursing College, 280 Seoseok-dong, Dong-gu, Gwangju 501-140, Korea
Tel: 82-62-231-7367 Fax: 82-62-232-9072 E-mail: smin7367@hanmail.net

투고일 : 2008년 10월 4일 심사완료일 : 2008년 11월 24일

2006).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로는 '노인의 4고(苦) 인 빈곤, 역할상실, 소외 및 질병문제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빈곤문제이다. 경제적 힘이 약해져서 오는 빈곤은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Jeon, 2006),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위가 약화되고 이에 따른 여러 측면의 노인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있다(Jung, 2007). 그래서 노인들이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원하는 배경에는 생계와 관련된 긴박한 사정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이는 취업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 및 예방하고,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회복과 그 향상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은퇴로 인한 직업의 상실이 노년기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연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은퇴가 노인 자신 또는 배우자의 생활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은퇴한 노인들의 생활 만족도가 직업이 있는 노인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온 연구도 있다(Kim, 2002). 은퇴 자체가 노인의 생활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은퇴로 인해 야기되는 수입의 감소가 노인의 경제활동이나 생활하는데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은퇴는 노년기만의 특성이므로 노년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 안정과 보장은 노인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뿐 아니라 노인의 지위와 자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까지 해주므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고 생활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Seo, 2007).

특히 노인 취업은 일반적으로 소득보장 수단이 되므로, 일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며, 건강유지와 여가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일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첫째,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제1가설. 노인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것이다.

제2가설. 노인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조군을 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시범사업에 동원된 인력을 대상으로 실험군으로만 구성된 단일군 전후 원시 실험설계(one group pre-post test design)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기간

본 연구의 대상은 G시 D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 참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동원된 만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으로서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인을 제외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노인 총 70명이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6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질문면접을 통하여 조사를 하였고, 총 78명의 노인을 면접하였으나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불성실한 질문지 8부를 제외하고 70부(89.7%)가 본 연구의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각 복지관 담당자와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내용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1) 자아존중감 척도

성격의 안정된 구성요소로서 개인의 자기에 대한 평가나 자기능력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되며 자기수용, 자기의 진가(眞價)에 대한 기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Rosenberg, 1965), 척도는 Nugent와 Thomas (1993)의 자존감평가척도(SERS)를

근거로 Koh (2002)가 노인대상자에 맞게,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하여 수정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아인식과 자아가치를 묻는 문항이 각각 11개 문항으로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일자리 참여 전 Cronbach's α 값은 .923이었고, 참여 후는 .920이었다.

2) 생활 만족도 척도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에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로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Choi (1986)가 개발한 노인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고,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로 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계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일자리 참여 전은 Cronbach's α 값은 .932, 참여 후는 .933이었다.

4. 일자리 참여 유형별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된 일자리 참여 유형은 교육형, 공익형, 시장형으로 대상기관, 대상자, 역할, 실시 시간 등은 Table 1과 같으며, 구체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형

D구 지역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다양한 교육기관(지역아동센터등)의 급증으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파악된 수요대로 노인강사들을 모집·교육 후 강사수칙 및 준수사항을 확인시켜 현장배치를 하게 되고 수요처와 협약서를 체결 후 사전에 협의된 프로그램 대상과 내용 등을 확정하여, 지역 내 유·초등학교 및 어르신 교육기관 등에 배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한자교육 및 그 외 강의 활동을 전개하고, 1주일에 2-3회 오전 오후 1시간씩 실시했다.

2) 공익형

D구 관내 유동광고물 즉 불법광고물, 전단지 등의 부착방지 및 제거사업은 단순 환경개선 사업이 아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및 캠페인 등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도하여 스스로가 불법광고물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에 발생하는 폐지를 제거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이 포함된다. 1주일에 2-3회 오전 오후 2시간씩 실시했다.

3) 시장형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적극적인 일자리방향으로 일명 핑크빛 행복나눔 사업단의 이름으로 현대인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제3의 광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쇼핑백제작을 단순작업과 전문작업으로 세분화시켜 제작 원청 업체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일자리사업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단순 노동인력을 흡수 이들에게 소득 활동을 제공한다. 1주일에 2-3회 오전 오후 2시간씩 실시했다.

5. 설문조사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5명이 일자리를 시작하기 전날 오전에 설문을 1대 1개인 면접법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일자리 참여에 관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수락한 자로 선정하였으며, 사전조사는 실험군에게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를 조사하였고, 사후조사는 일자리 참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 오전에 조사하였다.

6.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제변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으며, 성별은 여자가 52명(74.3%), 남자가 18명(25.7%)으로 여자가 대부분이었고, 연령은 70-79세가 37명(52.9%)으로 가장 많았으며, 60-69세

Table 1. 일자리 참여 유형별 프로그램

종류	대상기관(대상자)	역할	실시시간
교육형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교고·사회복지 시설·공공기관	교육 및 강의 활동	1주일에 2-3회, 오전 오후 1시간씩
공익형	동구관내, 구민	불법 유동광고물(벽보지류, 전단지 등)을 정비하고 제거	1주일에 2-3회, 오전 오후 2시간씩
시장형	기업체, 제작 원청 업체	제3의 광고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쇼핑백제작을 단순작업과 전문작업	1주일에 2-3회, 오전 오후 2시간씩

Table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성별	여자	52	74.3
	남자	18	25.7
연령(만)	60-69	23	32.9
	70-79	37	52.9
	80세 이상	10	14.3
배우자 유무	있다	41	58.6
	없다	29	41.4
가족형태	배우자+가족동거	9	12.9
	본인+가족동거	10	14.3
	부부	29	41.4
	기타	22	31.4
교육정도	무학	22	31.9
	초등학교	27	39.1
	중학교	12	17.4
	고등학교 이상	8	11.6
종교	무교	23	32.9
	기독교	24	34.3
	천주교	8	11.4
	불교	11	15.7
	유교	4	5.7
용돈	받는다	63	90.0
	받지 않는다	7	10.0
일자리	공익형	56	81.2
	시장형	7	10.1
	교육형	6	8.7
취미생활	있다	19	27.5
	없다	50	72.5
운동공급처	자녀	62	98.4
	기타	1	1.6

가 23명(32.9%), 80세 이상이 10명(14.3%) 순이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1명(58.6%)으로 많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29명(41.4%)이었다. 가족형태는 부부만 산다가 29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가 22명(31.4%),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10명(14.3%),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9명(12.9%) 순이었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 27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무학이 22명(31.9%), 중학교 졸업이 12명(17.4%),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8명(11.6%) 순이었다. 종교에서 기독교가 24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23명(32.9%)이었으며, 불교가 11명(15.7%), 천주교가 8명(11.4%), 유교가 4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용돈은 받고 있는 경우가 63명(90.0%)으로 많았고, 용돈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도 7명(10.0%)이 있었으며 자녀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62명(9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자리에서는 공익형이 56명(81.2%)으로 가장 많았고, 시장

Table 3. 일자리 참여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의 점수 비교

	Mean (SD)	Mean (SD)	t	p
자아인식	3.31±0.08	3.50±0.08	-2.193	.031
자아가치	3.04±0.09	3.46±0.08	-3.904	.000
자아존중(총)	3.31±0.08	3.48±0.08	-2.024	.047

Table 4. 일자리 참여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의 점수 비교

	Mean (SD)	Mean (SD)	t	p
생활 만족도	3.04±0.09	3.24±0.09	-2.028	.046

형이 7명(10.1%), 교육형이 6명(8.7%) 순으로 나타났다.

2.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점수의 변화

대상자들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1가설, ‘노인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높일 것이다’는 지지받았다.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자아인식의 평균이 3.31에서 참여 후 3.50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t=-2.193, p=.031$), 자아가치도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이 3.04에서 참여 후 3.46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t=-3.904, p=.000$), 자아존중 정도도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전 평균 3.31에서 참여 후 3.48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t=-2.024, p=.047$). 하부영역으로 자아인식은 3.31점에서 3.50점으로 향상되었고, 자아가치는 3.04점에서 3.46점으로 향상되었다($t=2.193, p=.031, t=-3.904, t=.000$).

노인들이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는 노후에 노인대상자들에게 여가활동과 소정의 수익을 통해 용돈이나 기초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받게 된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의 변화

노인들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의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제2가설, ‘노인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생활만족도를 높일 것이다’는 지지받았다. 일자리를 참여하기 전 평균 3.04점이었고, 일자리를 참여한 후 평균 3.24점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다($t=-2.028, p=.046$).

노인들이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노인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심리적, 경제적 여건에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생활만족 정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일자리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일자리 유형		생활만족도(사후)		F	p	자아존중감(사후)		F	p
		mean (SD)				mean (SD)			
일자리 유형	교육형 ^a	3.61±0.77		1.473	.236	3.44±0.68		0.819	.445
	공익형 ^b	3.36±0.35				3.44±0.31			
	시장형 ^c	3.68±0.54				3.80±0.68			

4. 일자리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정도

일자리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노인들의 일자리 프로그램 유형 즉 교육형, 공익형, 시장형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는 유형별로는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본 연구는 G시 D복지관에 있는 60세 이상 된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단일군 전후 원시 실험설계로 노인들의 대조군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제한점을 갖고 있지만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참여시키므로 그들을 돕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자아인식의 평균이 참여 전 3.31에서 참여 후 3.50으로, 자아가치는 참여 전 평균이 3.04에서 참여 후 3.46으로, 자아존중 정도도 참여 전 평균 3.31에서 참여 후 3.48로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저소득 노인의 자아존중감이 낮다는 Shim (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했고, 월 사용 지출액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차이가 있다는 Kim (2003)의 연구 결과와 월수입이 많은 사람 즉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Kim (2002)의 연구 결과 및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를 여가활동으로 여겨 이에 참여하는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보다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한 Kim (2007)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노인에게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아존중감은 노인의 우울과 역상관관계가 있는데(Park, 1993), 본 연구에서 노인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므로 자존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노후에 노인대상자들에게 여가활동과 소정의 수익을 통해 용돈이나 기초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받게 된 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점을 볼 때,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자신들의 소득을 확보하려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참여의 욕구도 포함하고 있어 노인에게 일자리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고, 소일거리와 여가선용 차원에서 노인에게 일자리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노후의 경제적인 자립생활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어 일을 통해 보람도 얻고, 단체 활동을 통한 소속감을 가지고 경제 활동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 전과 후의 생활만족도의 변화에서,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평균 3.04점이었고,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평균 3.24점으로 유의하게 향상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참여자와 비참여자들을 비교 연구한 Kim (2007)과 Seo (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고, 시니어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인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Bang (200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노인의 사회적 지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Jang, 2006; Kim, 2005; Park & Lee, 2006).

노인들이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므로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는 노인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통해 심리적, 경제적 여건에 도움이 된 것으로 여겨지며, 이로 인해 생활만족 정도를 높인 것으로 사료된다. 노후의 시간활용 방법에 대한 2004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서 가장 선호되는 것이 소득창출 27.8%, 취미활동 16.3%, 소일거리 14.5%, 자원봉사활동 3.1%, 자아개발 활동 2.4%로 나타났다(Jung et al., 2005).

그러나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노인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노동력의 과잉과 기업의 인사정책, 그리고 노인취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서 기능주의적 사회격리이론은 인간의 노화를 기능주의적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적 편견인데 노인이 반드시 체계적, 생물학적으로 또는 정

신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편견으로 인해 노인인력 활용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Jung, 2007).

또한 본 연구 대상자들에게 연구일자리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노인들에게 일자리 참여 자체가 생활만족과 자아존중감 정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유형별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어떤 형태이든 간의 노인의 일자리 참여는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심각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노년기의 역할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역할상실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 스스로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G시 D복지관에 있는 60세 이상 된 노인 7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도구로 자아존중감은 Nugent와 Thomas (1993)의 자존감 평가척도(SERS)를 근거로 Koh (2002)가 노인대상자에 맞게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고, 총 2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노인들의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그들의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를 위해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많은 일자리 참여와 제도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노인의 일자리 참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노인노동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원조와 민간기업의 협조가 요구되고, 노인취업알선센터의 프로그램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노인의 일자리 참여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정부의 행정규정에 의한 노인능력은행과 노인공동작업장 프로그램,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노인취업알선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셋째, 노인 전단계의 사람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전체 근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하기 이전에 퇴직준비교육을 실시하여 퇴직 후 잘 적응하도록 퇴직 준비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그러나 노인의 인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일자리 프로그램 진행 시 교육형, 공익형, 시장형의 유형을 비슷한 비율로 고르게 진행하고 싶었지만 실제 교육형과 시장형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추후 교육형과 시장형의 일자리를 더 보완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 단일군 전후 원시실험설계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Ahn, H. C. (2004). *A study on quality of life of aged who participates in social employment creation proj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 Bang, H. M. (2005).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ople participating community senior club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Jeonnam provi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Choi, S. J. (1986). *A study on development of life satisfaction scale of elderly*. Seoul: Ehwa Women's University Korea Culture Training Institute.
- Jang, I. S. (2006). The leisure type,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0, 130-140.
- Jang, S. H.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 36-46.
- Jang, Y. H. (2006). *A study on the activation methods of the employment of the aged in aging soc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 Jeon, G. Y. (2006).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ving satisfaction of the poverty aged: Focusing on the marit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Jung, G. H., Oh, Y. H., Seok, J. E., Doh, S. R., Kim, C. W., & Lee, Y. G. (2005). *The policy discussion about the life status and welfare desire of the aged society old people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e Health and Social Affairs.
- Jung, H. P. (2007). *A study on encouragement on the participation of professional elderly employe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Kim, B. I. (2005). The relations between self-esteem, self-care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home-dwelling elderly. *Journal of Korea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 415-426.

- Kim, K. H. (2007). *Satisfaction study of the senior job placement project participants: Based on the survey at senior welfare cent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im, M. R. (2002). *The study on factors that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ers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M. S. (2007). The effect of self 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mental health of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1, 146-157.
- Kim, Y. H. (2002).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Kim, Y. S. (2003). *Study on the self-esteem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 Koh, B. S. (2002).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Jeju.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18, 49-72.
- Lee, C. J. (2007). *Future society and elderly's problem*. The First Administrator of Health Welfare of elderly Basic Course.
- Nugent, W. R., & Thomas, J. W. (1993). Validation of the self-esteem rating scale.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3, 191-207.
- Park, H. S. (1993). *The effect of group cognitive therapy on depression, self-esteem and loneliness of the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eongbuk University, Daegu.
- Park, S. H., & Lee, J. H. (2006). The relationship among powerlessnes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7, 65-7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o, S. O. (2007). *A Study on elders' life satisfaction based on joining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Unpublished master's thesis, Deagu Catholic University, Deagu.
- Shim, M. S. (2005). *A study on self-esteem, social support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the low incom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7, 63-70.